저는 만화의 형식으로 제가 경험한 인간 관계를 표현했습니다. 만화는 가정, 학교, 독서라는 세 줄기로 나뉩니다. 가정에서는 취미를 둘러싸고 벌어진 가족 간의 갈등을 나타내었고 학교는 두 번의 이사를 거치며 형성된 단편적인 인간관계가 학창 시절을 어떻게 이루고 있고 어떤 점에서 지금도 그 영향이 남아있는지를 독서는 인간 관계에 있어 저에게 영향을 준 책 세 권을 다시금 돌이켜 보는 내용을 담고 있습니다. 발표를 준비하며 자신의 추상적인 기억을 한 편의 그림으로 경험을 통해 기억을 회상하는 관점 자체를 돌아보는 철학적인 시간을 가지게 된 점에서 유익했습니다. 그리고 개인의 심리를 파악하는데 있어 철학이 어떤 역할을 하는지 알아보는 시간이 되어 힘들지만 유익한 모임이었다고 생각합니다.